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불교TV	08:30 09:20 10:50 11:40	특집다큐 상인이 된 신라왕자 특집다큐 부처님의 지비로 이웃과 함께 특집다큐 진리의빛 석등 오감순 창작관소리 부처님전	지방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님의 일대기 조명 김수환주거, 강일홍공사 등 타종교인사들의 불속에 시작 전국 사찰의 석등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설명 석가세존의 탄생에서부터 구도, 득도, 중생구제의 길을 관소리로 묘사
불교방송	08:25 16:05 23:05	특집기획 관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 한국의 영화감독	중국대 역경원장 임은스님과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부신 의미와 재가불자의 마음가짐을 알아본다. 인성 도산사에서 열린 명창 안숙선씨의 부처님 일대기 완결 특집방송 한국영화의 역사를 영화감독을 시대별, 특징별로 소개 하고 그들의 작품세계와 에피소드 등을 듣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됐다 사면된 진관스님을 초청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를 논의한다.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불교합창제를 방송한다.
(대구)	15:05 16:05	초청대담 불교인권의 진관스님 불교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KBS1	09:05 10:00 20:00 23:05	특집다큐 불바다속에 핀 연꽃 불교법요식 심화강제 일요스케쉴 '달달살라'를 가다 영화극장 '리뷰스타'	국난 극복수에서 피어난 대장경 제작작업을 인어로 재 구성, 오늘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색해 본다.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부처님오신날 불교법요식 달라리아가 있는 티베트의 달달살라를 찾아간다 베르톨트 지독, 키아누 리브스 주연
SBS	12:10 16:00	특선영화 카구나 특집다큐 7만년 대장경 왕오천축 국전을 찾아	이탈리아 감독, 조영현 유괴리 김정훈 주연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며 예초스님의 발자취를 소개

초파일(5월 3일) 각 방송사 특집

부처님오신날 불만한 프로그램

- MBC-TV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의 의미 조명
- 불교TV - 오감순씨 BBS - 안숙선씨 판소리 부처님 일대기 '열창'
- SBS-TV '... 왕오천축국전을 찾아' 예초스님의 구법 발자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마다 초파일특집 영화, 다큐멘터리, 특집대담, 관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IMF시대 타인지 재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아쉬움을 주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MBC-TV의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과 '만행'이다.

5월3일(오전 6시45분~8시) 방영되는 '고은의...'는 불교의 우주론에 나오는 성산중의 하나이며 티베트인들의 가치관과 삶을 철저히 지배하는 수미산의 의미와 종교적 체험을 기행형식으로 조명한 것.

이 프로그램은 수미산을 종착점으로 정해 그곳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계최대의 티베트 사찰인 '트레중 사원'의 불교의식과 학생들의 생활상, 미담의 땅 창탕고원의 자연, 전설의 종세왕국인 '구개왕국' 등도 소개돼 마치 고은시인과 함께 티베트를 순례하는 듯한 실감을 준다.

또한 티베트의 고도 장재의 팔초사원에서 신라승려 예초의 조각상을 찾아내는 장면은 천년의 세월을 훌

쩍 뛰어넘게 만들어 티베트인들의 환생사 확고과정과 즉위식, 5천m 이상의 고원에만 서식한다는 전설의 동물 '빙', 수미산 순례자들이 물을 찾는다는 마나슬로보호수 등도 보여준다.

같은날 아리랑TV(오후2시10분~11시20분)와 MBC-TV(밤11시~12시)에서 방영되는 '만행'은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인 현각스님이 불교전통 수행방법의 하나인 가을철 만행을 통해 한국불교의 선세계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한편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일대기를 구성한 관소리가락으로 묘사한 '오감순 창작관소리 부처님전'(불교TV, 오전11시40분~12시)



◇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의 한 장면. 눈 덮인 산봉우리가 허말라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수미산이다.

12시30분)과 안숙선 명창의 '관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불교방송, 오후시5분~오후6시) 등은 언제 어디서든 가습속을 잔잔히 적셔준다.

또 SBS-TV는 3일 오후 4시에 방영하는 '7만년 대장경 왕오천축국전을 찾아'를 통해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구법의 길을 걸었던 예초스님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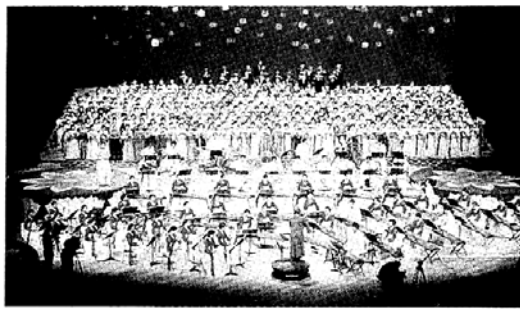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근세 한국불교의 대 선지식이며 삼일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또 창작찬불가의 원조인 용성스님이 흥겨운 국악교성곡으로 되살아났다.

23~25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단장 박범훈)과 7백여 연합합창단의 연주로 발표된 '용성'(도문스님 대본, 목정배 사, 박범훈 곡)은 우리 고유의 국악선율과 감각적인 무대연출이 잘 어우러진 봉축 한마당이였다.

서가(序歌)는 고음으로 시작 다소 불안했지만 '용성'은 △탄생 △어린 시절 △출가 △에불 △시련 △삼일운동 △나라는 어디고 △대각운동 △깨침이여 밝음이여 △불타성지 가꾸어가세 등 10장으로 나뉘어져 각 장마다 명창 안숙선 김성녀씨, 유희성씨의 노래와 이를 받쳐주는 합창으로 용성스님의 생애를 드

■ 국악교성곡 '용성' 감상記 '대각사상' 기린 무대 관객들 흥겨운 감동



◇ 시각적인 볼거리 연출이 음악적 감동을 높여준 창작국악교성곡 '용성'. 7백여명의 연합합창단이 용성스님의 대각교운동을 찬탄했다.

라마티하게 고조시켰다. 특히 무대위에 4개의 연화좌를 마련, 각 장면마다 그에 맞는 시각적인 볼거리를 연출해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흥겨움을 주었다. 출가 후 수행과정은 법행 율타 효성스님 등 영산재 이수자스님들과 국악예술단이 병행과 작법무로 표현했고 '대각운동' 부분은 용성스님이 종금을 타며 스님이 작곡한 '왕생가'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실제로 연출되어 한층 감동을 높였다.

박범훈 단장의 신들린듯한 지휘로 1시간 30분동안 연주된 '용성'은 최근 대형불교음악 공연이 부재한 가운데 나온 불교음악연주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 뿐 아니라 단순히 듣는 음악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보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속)

전시 소식

이태승 첫 '불화전'
28일~5월8일 불일미술관

이태승교수(유대인 회화학)가 5월8일까지 불일미술관에서 첫 불화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월관음도' '관경보살상'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등 전통기법에 충실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한 대작 불화 8점을 볼 수 있다. 특히 가로 108cm 세로 4m의 오백나한도는 전형적인 산수화와 인물화 기법을 응용한 대작이다. (02)733-5590

황영성 '가족이야기전'
5월6일까지 갤러리현대 등

중견화가 황영성(조선대 미술대학장)가 오백나한과 돌무덤에서 영감을 얻어 구상한 근작전시회를 열고 있다. 5월 6일까지 갤러리 현대(02-734-8215)와 박영덕화랑(02-544-8481)에서 1백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 황씨는 소 꽃 나비 물고기 집 탐 등 일상의 소재에서 나온 여러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중복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커다란 격자무늬를 이루는 조형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좋은 가요를 통해 포교에 적극 나서지고 강조한 남국인, 지원스님, 한인식·진승남부부(왼쪽부터).

좌담 "가요통한 포교나서자"

지원스님-남국인씨-진승남·한인식부부

지원스님(서울 삼보사 주지)의 작사에 남국인씨가 곡을 붙이고 진승남 한인식 부부가 노래한 '큰 사랑' CD와 카세트테이프가 나왔다.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한 트로트가요로 부처님의 대지대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천수천안관음송가' 전국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는 지원스님과, 트로트가요 작곡가 남국인씨, 제3대 불자 가수회장을 역임한 진승남 한인식 부부가 17일 삼보사에 모여 '큰 사랑' 출시를 계기로 가요를 통한 불교포교에 대해 좌담을 가졌다. 좌담의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주)

지원스님=은혜의 부재 시대에 살다보니 사후에 점점 각박해지고 포악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형제 친구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해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은혜 뿔'자를 보면 원인 그자 밑에 마음 신자를 썼지요. 그 원인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요즘 범죄가 늘어나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은혜에 대한 근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남국인=스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다 절구한 대중 가요이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습디다.

진승남=노래를 취할 때 저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안 좋을 때라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없고 험담하고 한없이 깊고 넓지요.

지원=16년전 도시로 나와 대중포교를 할 때부터 합창단을 조직해 포교활동을 했는데 불법을 쉽게 표현한 찬불가를 불자들이 듣고 부르고 하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30분, 40분 하는 법문보다 3분 찬불가가 어는 때는 더 가슴에 와 닿는 사례들을 보고 노래포교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느꼈지요. 그러므로 꼭 찬불가다, 찬불가요다, 찬불가곡이다 등 그러한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인식=우리가나 상당수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원래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잠재적인 불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노래가 시름을 달래줄 수 있지요.

진승남=요즘 가요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에요. 깊이있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큰 사랑'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곤 참체된 사회 분위기를 쇠신시키면서 온 국민이 애창하는 '국민의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노랫말로 선율로 대중교화

제25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크게보자·다리자·타트이서겨로"

일시 2542년 6월 6일(토)~7일(일) **장소** 속리산 유스타운 신관 (법주사 입구)

■ 동참금: 3만5천원(군중병, 도서벽지 지도자 2만원)
(1박 3식, 연수자료집, 선법과 교리 연구총서 1~2집 합본호, 포스터지급)

■ 신청방법: 미리 접수 받습니다.
① 신청인 관제로 송금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2개반(A/B)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됨으로 반 선택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5월 1일~20일까지 접수입찰 정회원
· 우체국 계좌: 601310-003787-11 · 예금주: 대불이(조중환)

■ 강의준비물(8만 강의 신청자만 준비)
신문(다량), 요쿠르트병 10개, PET병(동근)2개, 풍자립 10개, 물, 분드, 쌀, 가위, 색종이(라켓), 한지, 송곳, 포스트카라(5색이상), 붓, 크레파스등
※ 생활용품으로 구분되어지는 각종 물품을 수집해 오세요.

■ 각지역 문의처: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차량 차량 준비됩니다.
· 서울 ☎ (02)433-1506~7 선재마을 유대근 사무국장
· 부산 ☎ (051)853-5486~7 보현선원 미유경
· 광주 ☎ (062) 365-0367 덕영사 무드스님(본회 이사)
· 대전·충남 ☎ (042)633-1141 법동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 경남 ☎ (0551)66-0170 (마산·합천·진해) 박영희
· 제주 ☎ (064)56-4233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이사)

■ 문의: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051)808-4571
· PC통신: 천리안 GO BOSAL (운영자 수신선지 이용)

주요연수내용	강사
A반 주제 1. 불성개발을 위한 심성프로그램	박대수 (교육학박사, 전 제주상림삼림연구소 회장)
2. 보살심을 키우는 장애체험	김광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3. 마음한번 돌리니...(아동극)	김종홍 (소설가/극작가/문학박사)
B반 주제 1. 아동을 위한 인지정서프로그램 (육아리얼, 필경도를 통한 수행법)	덕원스님 (동국대불교이종학과교수, 동국대유치원 원장)
2. 인욕심을 배우는 극기훈련	부산사주지도사회
3. 생활용품으로 부처님세상 만들기	리혜진 (중앙승가대 불육교사/교육원 교수)
· 급격한 변화속의 어린이법회에 대한 새로운 모색	본회 회장
· 주제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 IMF시대에 맞는 불교학교 준비와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주제별 프로그램 검토	김미옥 (육련유치원 원장)
· 이럴뎌 이런 놀이가 최고! · 야외법회에 쓰이는 공동체놀이 · 법당에서의 주의집중 놀이	남희은 (동국대 부산교과REC 강사)
·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찬불가와 율동	정유탕 (풍경소리/작사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총재 정관 · 부총재 혜충 · 회장 철오 · 상임부회장 운성 · 이사 영조, 덕진, 설봉, 해란, 원정, 심산, 무동, 성형, 지광, 인성스님